

지역 소식통



국립자연휴양림국립리소(소장 정영덕)은 변산자연휴양림에서 오는 22일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오후 20시부터 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펼쳐진다.

산림청은 개청 50주년 슬로건으로 "같이 이룬 푸른 함께 나눌 푸른 숲"으로 정했다. 지난 1967년 개청 이래 온국민과 산림청이 푸른숲을 가꾸는 의미이며 국민들과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다짐으로 펼쳐질 숲속 음악회를 통하여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청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국립리소장은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숲속 음악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알찬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전한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국립리소장은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숲속 음악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앞으로 다양하고 알찬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전한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경찰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부안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군내 22개 초등학교와 각 학교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부안서에 따르면, 방학기간 교외 활동 중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기획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트와 눈금자, 저금통 물통, 전 단지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홍보 용품을 나누어 주어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동민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참석해주신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캠페인,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아름다운 연꽃 '활짝'

정읍 태인 피향정 연꽃, 21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절정'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 불리는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289호) 연꽃의 연꽃이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연꽃은 오는 21일경부터 내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은은한 향과 아름다운 자태로 유명한 피향정 연꽃 개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진작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발걸음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 왔다는 사진작가는 "연꽃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한옥 정자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피향정 연꽃 자태는 전국 최고"라며 일대 풍광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랐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속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생명의 빛을 상징해 왔다.

호남 제일의 정자로 널리 알려진 피향정은 원래 정자 앞뒤로 상연지와 하연지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다.

연꽃에 핀 연꽃의 향기가 주위에 가득하다 하여 '피향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상연지는 1900년대 초 매워지고 현재는 하연지만 남아 있다.

신라 말 고승 최치원 선생이 태산군수로 재직할 때 이곳 연꽃가를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 불리는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289호) 연꽃의 연꽃

거닐며 풍경을 읊었다고 전해진다.

피향정은 창건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의 건물은 조선 숙종 때인 1716년 태인현감 유근이 다시 고쳐 지은 것이다.

최고의 아름다운 연꽃단지 명성을 자랑하던 피향정 연꽃은 한때 정자와 연못 사이에 담이 들어서고 통신주가 세워지면서 경관이 훼손됐다.

이에 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올해 초 담을 철거하고 통신주를 제거했다.

이로써 아름다운 자태와 은은한 향의 연꽃의 자태와, 전통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피향정이 조화를 이루며 예전의 경관을 되찾게 됐다.

시 관계자는 "피향정의 아름다운 모습과 분홍빛 연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흙 속에서도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북 서부 업체 30% "여름휴가비 지급 안한다"

(정읍·김제·고창·부안)

전북서부남상의, 하계휴가계획 조사결과 경기 침체가 주원인... 94% '휴가 실시'

정읍,김제,고창부안 기업체 10곳 가운데 3곳은 경기침체로 인해 직원들에게 여름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서부남상공회(회장 김적우)는 관할지역(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있는 1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계 휴가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94%인 94개 업체가 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가 일정과 관련하여는 80개 업체가 7~8월중에 한다고 응답했으며, 휴가기간은 80개 업체가 4~5일로 가장 많았고 3일 이하로 간다는 업체도 40개로 조사됐다.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들 중에는 50만원 이상 지급한다는 업체가 47개로 가장 많았으며, 휴가 중 조업유무에 대해서는 100개 업체 중 55개 업체는 가동 나머지 45업체는 중단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업유무에 대해서는 납품일 을 맞춰야 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휴양소 운영여부와 관련하여는 응답업체 중 97개 업체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체감경기를 묻는 질문에 68개 업체가 '나쁘다'고 응답했고, 32개 업체는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이 해소

되고 새 정부 출범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사드 북핵 문제 등의 불안정한 대외변수와 현대중공업(주)군산조선서 재가동 등 지역 현안 문제로 지역경제의 완전 회복에 대한선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작년과 같이 대부분의 기업체가 휴가를 7월말과 8월초에 단기간에 집중해 시행할 계획이며, 경기가 어려워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지만, 여름휴가비가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점검

고창군이 본격적인 장마철과 집중호우를 대비해 가축 매몰지(구제역 및 AI)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멸처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으로 조성된 매몰지 총 8개소에 대해 매몰지 침출수 유출여부, 침수·붕괴·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 시설 관리 등에 대해 점검했다.

고창군은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AI로 인해 매몰지 7개소가 신규로 설치됐으며, 이 중 5개소는 호기호열방식(미생물을 이용해 가축사체를 분해·발효시키는 방식)으로 2개소는 바이오스톤으로 처리했다.

AI 발생으로 인해 고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총 26개소이며, 지난 2014년도 조성된 AI 매몰지 17개소는 법정관리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굴해 소멸처리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올해 매몰지 9개소는 정기적으로 자체점검과 환경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르면 구제역·AI 바이러스 검사 및 토양 미생물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매몰된 가축사체 분해가 완료된 경우 사체 잔존물을 소각처리 한 다음 관리 해제(소멸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이 관리하는 매몰지 26개소에 대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AI 방역과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도 매몰지 훼손 시 군청에 신속히 알려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정고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 선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운영자에게 외승 관광승마프로그램 참여의 일부(60%)를 지원하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창의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생태환경과 관광기반을 활용해 해변승마, 숲 속 승마 등을 체험하는 관광승마를 육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승마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승마산업화 및 안전지원사업과 사육시설의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말 산업 시설개선사업도 지원한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시포해수욕장과 동호해수욕장에 이르는 10km 명사십리 일대 해안가에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말과 교감하고 승마체험을 하면서 유네스코가 인정

한 고창갯벌 등지를 돌아볼 수 있는 특색 있는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박우정 군수는 "말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승마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고창만의 특색 있는 농촌관광 모델을 발굴하여 새로운 농어촌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내일 쪼쪼가무시증 예방교육

정읍시보건소가 내일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쪼쪼가무시증 예방교육을 갖는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와 진료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소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건소와 진료소 직원들에게 예방요령 등을 전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오경재 교수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오교수는 이날 아외직접이나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예방요령 등을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쪼쪼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쪼쪼가무시균에 감염된다.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근육통, 두통, 피부발진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나 특히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고 풀밭 위에 눕지 말아야 하며, 야외 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나 목욕으로 진드기를 제거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부안강산명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Experience the taste of mulberry wine with Buan Gansanmyeongju).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s and their prices, such as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